

위장전입·논문 중복게재 논란

양창수 대법관 인사청문 자질·도덕성 집중 추궁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일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및 논문 중복게재 논란, 군사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전력 등 자질 및 도덕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양 후보자가 지난 84년 말 부친의 제주도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당시 판사 신분에서 법을 물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사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양 후보자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지난 84년부터 1년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력을 들어 “후보자 스스로 ‘법관은 권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영선 의원은 양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민법 개정 작업의 경과와 재판권원의 개정 검토사항” 논문이 2001년 3월 학술지인 ‘민사법학’에 실리는데 이어 2001년 12월 학술지 ‘민사법연구 제9집’에

박 의원은 “지난 2006년에는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로 취임 13일 만에 사임한 바 있는데 대법관 자리는 장관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들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논란, KBS 사장 해임 및 인선 문제,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촛불집회 시위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논란, 네티즌 수사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서도 양 후보자의 입장을 물으며 공세를 취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양 후보자가 지난 2001년 ‘명의신탁에 대한 규율 제고’ 기고문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위법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투기성 토지거래를 막기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투기 근절을 통해 서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촛불 정국 등에서 이뤄진 법 집행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서상범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원칙적인 법 적용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시도가 맞다고 보느냐”고, 이상규 의원은 “촛불시위에서 보듯 도를 지나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같은 제목, 같은 내용으로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른 3건의 논문도 학술지와 학술잡지에 중복 게재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 2001년 ‘인권과 정의’, ‘민사판례연구 24호’에 실린 ‘부동산 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종료시기’ 논문의 경우 내용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고도성장시대 부활 확신”

울산시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경제위기’와 관련, “세계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고도성장하는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 업무보고를 받

은 자리에서 “지난 세월 평탄한 길만 걸어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아니다. 고비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한국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자력과 지혜를 가진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사회가 점진적으로 법을 지켜가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론 법과 질서를 지키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도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본”이라면서 “울산은 노사 화합을 가장 잘 이끌어가는 도시라고 생각하며 다른 많은 도시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감세안 싸고 설전

여 “감세 필요” 야 “부자위한 정책”

강만수 “감세로 경제 성장하는 게 국민 심판”

국회 기획재정위는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최근 발표된 2008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전반적인 감세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퍼부으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기본적인 감세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부자를 위한 감세란 있을 수 없고, 전반적인 세금 완화의 효과를 전가 과정을 통해 전 계층에 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감세와 작은 정부 만들기를 통해 대처를 잘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합부동산세의 경우 조금 더 과감하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항간에서는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배영식 의원도 “전반적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 세제개편”이라며 “참여정부가 모든 경기를 세금으로 묶어 놓았다면, 그 막힌 흐름을 풀기 위해서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번 감세는 부자와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일 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가 아니다”면서 “갯간을 비우는 무책임한 감세고, 실패한 레이거노믹스를 따라하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법인세 감면, 서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세를 일괄 2%씩 낮추는 것은 하루 상박 원리에 어긋나고, 부자들에게 감면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종률 의원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제 경제 상황에 동떨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동떨어진 처방이 나온 것 같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출 게 아니라, 현행 10%인 법인세를 7%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속세를 최고 50%까지 인하한 것은 그야말로 서민·중산층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8조는 항구적으로 조세가 감면되는데, 이는 전반적 재정악화로 이어져 결국 복지예산 감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증세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우리 성장 잠재력을 4%대로 감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청년 실업을 100만 명으로 늘여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감세를 대신 공약으로 내세웠고, 감세로 경제 성장하는 것이 국민 심판”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쇠고기특위 ‘선물 vs 설거지’ 공방 재연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3일 외교교통상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기관보고에서는 ‘선물론’과 ‘설거지론’으로 대별되는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지난해 말 수전 슈워브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3단계로 나눠 완전개방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면서 “한미쇠고기협상은 참여정부의 약

속과 계획에 따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추가협상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1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동물성사료 강화조치가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의 완전 준수로 이어진다는 미측의 절충안을 거부했는 데 같은 달 1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미측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면서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미국이 OIE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OIE 기준을 준수하라는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서 “정부가 미측의 광우병 방역관리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았는데도 쇠고기 협상에서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쳤다.

/연합뉴스

= 한빛고시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

www.hanbitgosi.co.kr

공무원 합격의 대세 **한빛고시학원** 공무원 수험생은 한빛에 다 있다!

공무원합격압도적 1위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광주 전남대 후문 복구청약 (062)234-0234

개강 > 10월 1일

교육행정/농업직/기술직/사회복지/출판직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발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동행문제풀이 **죽집계단기특강** 최종문제풀이

9월 1일 ~ 9월 12일 (1단계 워킹업) 9월 16일 ~ 10월 5일 (2단계 이론핵심요약) 10월 6일 ~ 10월 18일 (3단계 최종 점검강의)

● 전국 최다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화정1단지, 오지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일 9월 6일 - 주말반 -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공인 5회시험</p> <p>-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 령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수강료 국가 지원</p> <p>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p>
---	--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09년 공무원 시험에 승격이 유력한 개강이 9월1일입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이루시길 바랍니다.

◎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 지방직

◎ 강좌직종: 행 교 세 관 법 검 철 교 보 보 복 군 토 건 전 정 행 무 세 원 활 공 정 호 건 지 무 복 축 산

<p style="text-align: center;">하반기 시험</p> <p>● 전남: 9급 세무직 및 관공직 9월 27일 2009명 135 ● 전북: 제2회 8, 9급 기술직 9월 27일 119명 60명 ● 충남인원: 9급 행정직 9월 27일 70명 30명</p>	<p style="text-align: center;">개강</p> <p style="text-align: center;">9월 1일(주-아침반 모집)</p> <p style="text-align: center;">(현재예약접수중)</p>	<p style="text-align: center;">합격 회원 모집</p> <p>● 6개월 (총)회원 80만명 ● 1년 (총)회원 120만명 ● 합격시까지 170만명</p>
--	---	--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 222-4560

www.mdgosi.co.kr